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전경구** · 김은경*** · 조덕호****

An Analysis of the Multiplier Effects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Relocation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Chun, Kyung Ku** · Kim, Eun Kyung*** · Cho, Deokho****

요약: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공공기관이전, 도청이전, 다지역산업연관분석,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효과

Abstract: The relo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provincial government attracts much attentions since it results in substantial regional economic impac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relocation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from Daegu city to Gyeongsangbuk-Do, which is scheduled for 2014,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Based on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and I-O data which were provided by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plier effects of the relocation in terms of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and other regions, except for the construction effects of the provin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location is expected to reduce the production by 290million won, value added by 709million won, and employment by 571 persons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Also, the relocation turns out to decrease the production by 1,179million won and value added by 123million won of other regions. This paper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Key Words: Relo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MRIO, IRIO, Production multiplier effect

1. 서론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수도

1) 연구목적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2-B00034)
** 대구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aegu University) (kkchun@daegu.ac.kr)
*** (주)공간토목 엔지니어링 대리(Deputy Section Chief, Space Civil Engineering)(eun8376@nate.com)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chodh@daegu.ac.kr)

권에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도청이전이다. 도청이전은 일반적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광역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역시에 있던 도청을 관할구역인 도의 행정구역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의하여 추진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청이전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떠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입지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당해 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경남도청의 창원이전이 부산경남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전남도청 이전이 호남지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과연 바람직한 의사결정이었는가? 등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질문은 특히 광역경제권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역경제권 정책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핵심적인 지역정책으로 전국의 광역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통합적인 개발을 추진한 정책이다. 이는 광역시·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했던 정책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청이전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도청이 광역시를 떠나 도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지인 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광역시는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특히 광역시는 광역경제권내의 중심도시로서 집적경제와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집적경제와 중심기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광역경제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도청이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의 이전문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수도권의 집적경제를 저하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켜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경북도청의 경북이전이 대경광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전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반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사업연관분석법을 토대로 경북도청 이전이 대경광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다수지역(many region) 산업연관표 가운데서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표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2009년 발표한 16개 시도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청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도청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반면에 이전 후 영향은 정부지출과 민간소비지출의 공간적 이동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도청신도시건설이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 도청의 경북이전 후 각종 최종수요의 공간적 이동이 대경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²⁾.

2. 분석모형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지역간·산업간 이출입은 다수지역(many-region)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수지역 산업연관표도 크게 지

역간 산업연관표(IRIO)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로 구분된다(Richardson, 1972; Hewings *et al.*, 1999; Miller & Blair, 2009; 김홍배 2009). 본 연구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2009)에서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형태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경북도청이전이 대경광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세 가지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간 사업연관분석모형에서 전국을 임의의 n 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대구(D), 경북(G), 서울(S) 등의 N개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bmatrix} A^{DD} & A^{DG} & \cdots & A^{DO} \\ A^{GD} & A^{GG} & \cdots & A^{G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A^{OD} & A^{OG} & \cdots & A^{OO} \end{bmatrix} \begin{bmatrix} X^D \\ X^G \\ \vdots \\ X^O \end{bmatrix} + \begin{bmatrix} F^D \\ F^G \\ \vdots \\ F^O \end{bmatrix} = \begin{bmatrix} X^D \\ X^G \\ \vdots \\ X^O \end{bmatrix} \quad (1)$$

식(1)에서 A는 지역내 투입계수행렬과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을 의미하고 각 첨자는 지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1)에서 X는 지역의 총산출을, F는 최종수요를 나타낸다³⁾. 최종수요의 증가가 지역별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식(2) 또는 식(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2)와 식(3)에서 역행렬은 지역간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begin{bmatrix} X^D \\ X^G \\ \vdots \\ X^O \end{bmatrix} = \begin{bmatrix} I & O & \cdots & O \\ O & I & \cdots & 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O & O & \cdots & I \end{bmatrix} \begin{bmatrix} A^{DD} & A^{DG} & \cdots & A^{DO} \\ A^{GD} & A^{GG} & \cdots & A^{G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OD} & A^{OG} & \cdots & A^{OO} \end{bmatrix}^{-1} \begin{bmatrix} F^D \\ F^G \\ \vdots \\ F^O \end{bmatrix} \quad (2)$$

$$\begin{bmatrix} X^D \\ X^G \\ \vdots \\ X^O \end{bmatrix} = \begin{bmatrix} I-A^{DD} & -A^{DG} & \cdots & -A^{DO} \\ -A^{GD} & I-A^{GG} & \cdots & -A^{G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OD} & -A^{OG} & \cdots & I-A^{OO} \end{bmatrix}^{-1} \begin{bmatrix} F^D \\ F^G \\ \vdots \\ F^O \end{bmatrix} \quad (3)$$

한편 각 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계수는 식(4)와 같이 계산되는데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식(5)와 같다. 식에서 A^{vk}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나타낸다. 식(3)을 식(5)에 대입하면 식(6)으로 표현되는데 이 식은 최종수요의 1단위 변화가 야기

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의미한다.

$$A^{vk} = V^k / X^k, \text{ 단, } k = D, G, \dots, O \quad (4)$$

$$\begin{bmatrix} V^D \\ V^G \\ \vdots \\ V^O \end{bmatrix} = \begin{bmatrix} \widehat{A}^{vD} & O & \cdots & O \\ O & \widehat{A}^{vG} & \cdots & 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O & O & \cdots & \widehat{A}^{vO} \end{bmatrix} \begin{bmatrix} X^D \\ X^G \\ \vdots \\ X^O \end{bmatrix} \quad (5)$$

$$\begin{bmatrix} V_j^D \\ V_j^G \\ \vdots \\ V_j^O \end{bmatrix} = \begin{bmatrix} \widehat{A}^{vD} & O & \cdots & O \\ O & \widehat{A}^{vG} & \cdots & 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O & O & \cdots & \widehat{A}^{vO} \end{bmatrix} \begin{bmatrix} I-A^{DD} & -A^{DG} & \cdots & -A^{DO} \\ -A^{GD} & I-A^{GG} & \cdots & -A^{G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OD} & -A^{OG} & \cdots & I-A^{OO} \end{bmatrix}^{-1} \begin{bmatrix} F^D \\ F^G \\ \vdots \\ F^O \end{bmatrix} \quad (6)$$

또한 각 지역의 산업별 고용계수는 식(7)과 같이 계산되는데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식(8)과 같다. 식에서 \hat{l}^k 는 고용계수의 대각행렬을 나타낸다. 식(3)을 식(8)에 대입하면 식(9)와 같이 최종수요의 1단위 변화가 야기하는 고용유발효과가 계산된다.

$$l^k = L^k / X^k, \text{ 단, } k = D, G, \dots, O \quad (7)$$

$$\begin{bmatrix} L^D \\ L^G \\ \vdots \\ L^O \end{bmatrix} = \begin{bmatrix} \hat{l}^D & O & \cdots & O \\ O & \hat{l}^G & \cdots & 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O & O & \cdots & \hat{l}^O \end{bmatrix} \begin{bmatrix} X^D \\ X^G \\ \vdots \\ X^O \end{bmatrix} \quad (8)$$

$$\begin{bmatrix} L^D \\ L^G \\ \vdots \\ L^O \end{bmatrix} = \begin{bmatrix} \hat{l}^D & O & \cdots & O \\ O & \hat{l}^G & \cdots & 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O & O & \cdots & \hat{l}^O \end{bmatrix} \begin{bmatrix} I-A^{DD} & -A^{DG} & \cdots & -A^{DO} \\ -A^{GD} & I-A^{GG} & \cdots & -A^{GO}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OD} & -A^{OG} & \cdots & I-A^{OO} \end{bmatrix}^{-1} \begin{bmatrix} F^D \\ F^G \\ \vdots \\ F^O \end{bmatrix} \quad (9)$$

위의 모형은 전국을 N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을 때를 상정한 모형이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구(D)와 경북(G)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을 대구와 경북, 그리고 기타(O)의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자료

1) 지역산업연관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청이전의 파급효과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2009년 8월에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한국은행에서는 전국산업연관표만 작성하고 지역산업연관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역산업연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에 처음으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에 산업구조와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지역별 투입구조와 상품 이출입내역 등에 대한 실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연장한 간접추계방식으로 작성하였다.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였고, 표의 형식은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형태이며 이입 및 수입 분리형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부문분류는 「2005년 전국산업연관표」의 분류와 동일하게 168개 부문으로 세분하였으며 가격은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도청이전에 따른 최종수요 변화

(1) 관련기관이전 추진계획

경북도에서는 도청이전 예정지 약 11km에 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청과 산하기관만으로는 도의 전반에 걸친 지역 발전을 지원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전대상기관은 전체 131개 기관으로, 종사자 수는 7,986명에 달하는데 이전대상 기관 중에서 도 본청과 함께 이전을 추진할 1차 이전대상기관은 총 81개에 종사자 수는 3,971명에 달하고, 도청사 이전 후 2차로 이전을 유도할 기관은 50개 기관에 종사자 수는 4,015명에 달한다⁴⁾.

(2) 민간소비지출 및 정부지출의 이전

앞의 공공기관 이전추진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에 따라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소비지출액을 추정하였다.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최종수요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은 민간소비지출과 지방정부지출이다. 즉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비지출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도청이 대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구에서 발생하였던 지방정부지출도 경북도로 이전된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의 소비지출을 의미하며, 지출목적에 따라 식료품 및 연초,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교통통신,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은 경북 1인당 민간소비자지출액에 앞서 제시한 도 본청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 수 및 그 가족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동하는 인구수는 종사자수 7,986인에 경북의 평균 가구원수인 2.56인을 곱한 20,444명으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동할 민간소비지출액은 총 188,291백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임료및수도광열 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15.81%인 29,760백만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음은 교통비 지출이 전체의 11.95%인 22,510백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이 20,698백만원으로 추정되고 기타는 전체의 12.95%인 24,392백만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투자지출은 대부분 경북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이전되는 지출이 아니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소비지출은 정부서비스 생산자가 공급하는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의 집합적 서비스와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 위생 및 문화 서비스 등 개별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액을 의미한다(한국은행, 2009, p.75).

대구에 입지하고 있는 도 본청과 유관 및 산하기관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얼마만큼의 지방정부지출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동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도 및 유관기관의 전체 예산 가운데 대구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 본청의 예산을 토대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항목별로 개략적인 이전 금액을 추정하였다. 2008년 경북도 본청의 예산액은 4조 1,568억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에 달하는데 이 전체 예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대구에서 지출되고 있어 도청이전과 함께 공간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정부소비지출은 전체 예산의 약 0.67%인 27,821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반행정 및 국방 부문이 7,11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보건복지 및 환경이 6,655백만원, 교육 및 오락문화가 각각 6,143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4. 분석결과

1) 도청이전의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는 해당부문별로 최종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반면 경북은 증가하게 된다. <표 1>과 <표 2>에서 제시된 민간 및 지방정부 소비지출액의 변화를 식 (3)에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표 1.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추계 (2008년)

부 문	금액 (천원/인)	구성비 (%)	소비지출 (백만원)	총소비지출 ⁵⁾ (백만원)
식품및비주류음료품	1,012.4	10.99	8,085	20,698
주류및담배	273.8	2.97	2,187	5,599
의류및신발	451.6	4.90	3,607	9,234
임료및수도광열	1,455.7	15.81	11,625	29,760
가구집기및가사용품	335.9	3.65	2,682	6,866
의료보건복지및환경	668.1	7.25	5,336	13,660
교통	1,101.0	11.95	8,793	22,510
통신	359.6	3.90	2,872	7,352
오락문화 및 종교	861.8	9.36	6,882	17,618
교육	697.6	7.57	5,571	14,262
음식숙박	799.3	8.68	6,384	16,343
기타	1,193.1	12.95	9,528	24,392
합계	9,210.0	100.00	73,551	188,291

자료: 통계청 (2008)의 민간소비지출액을 토대로 추정

표 2. 이전될 지방정부소비지출액 추정

부 문	최종수요 (백만원)	구성비 (%)	비 고
일반행정및국방	7,116	25.6	
공공질서및안전	2,064	7.4	
경제 ⁶⁾	5,457	19.6	
보건복지및환경	6,655	23.9	
주택및지역사회개발	385	1.4	
교육및오락문화	6,143	22.1	
합계	27,821	100.0	

자료: 경북도 예산안(2008)을 토대로 추정

같이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구는 연간 252,87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경북은 연간 251,58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권은 연간 1,290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의 감소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청이전으로 경북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지만 대구의 감소액을 상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경권 전체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경북도청이전이 대구와 경북 이외에 우리나라의 타 권역에는 연간 1,17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도청의 경북이전은 대경권과 타권역을 합하여 연간 2,46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별 생산유발효과의 변화

(단위: 백만원)

산업부문	대경권			타권역	합계
	대구	경북	소계		
농림수산물	-1,879	5,255	3,376	21	3,397
광산물	-8	-4	-12	-119	-131
음식료품	-28,709	28,164	-545	-377	-922
섬유및가죽제품	-9,487	10,385	898	1,455	2,353
목재및종이제품	-943	807	-136	7	-129
인쇄및복제	-635	583	-52	134	82
석유및석탄제품	-121	-612	-733	-1,273	-2,006
화학제품	-1,152	1,338	186	820	1,006
비금속광물제품	-255	174	-81	-144	-225
제1차금속제품	-241	-217	-458	-544	-1,002
금속제품	-561	636	75	130	205
일반기계	-119	152	33	55	88
전기및전자기기	-436	597	161	251	412
정밀기기	-83	116	33	74	107
수송장비	-860	876	16	41	57
기타제조업제품	-7,249	7,248	-1	175	174
전력,가스및수도	-32,540	28,856	-3,684	-2,335	-6,019
건설	-916	1,399	483	141	624
도소매	-1,441	1,087	-354	-459	-813
음식점및숙박	-22,359	22,360	1	14	15
운수	-24,084	23,893	-191	-127	-318
통신및방송	-9,848	9,900	52	-27	25
금융및보험	-2,968	2,838	-130	125	-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141	4,964	-177	788	611
공공행정및국방	-9,855	9,781	-74	-1	-75
교육및보건	-38,544	38,577	33	29	62
사회및기타서비스	-22,353	22,349	-4	-62	-66
기타	-30,089	30,086	-3	29	26
합계	-252,879	251,589	-1,290	-1,179	-2,469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 부가가치유발효과

한편 식(6)을 토대로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별 부가가치유발효과⁷⁾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경북도청의 이전은 대구에 연간 100,559백만원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반면 경북에는 연간 99,853백만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이

전은 대경권 전체에 705백만원의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의 이전은 타 권역에 123백만원의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연간 828백만원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용유발효과

식 (9)를 토대로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별 고

표 4.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별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변화

(단위: 백만원)

산업부문	대 경 권			타권역	합계
	대구	경북	소계		
농림수산물	-1,138	3,092	1,954	12	1,966
광산품	-5	-2	-7	-75	-82
음식료품	-5,077	3,722	-1,355	-58	-1,413
섬유및가죽제품	-2,636	2,612	-24	374	350
목재및종이제품	-244	196	-48	2	-46
인쇄및복제	-256	235	-21	50	29
석유및석탄제품	-28	-65	-93	-89	-182
화학제품	-290	341	51	173	224
비금속광물제품	-78	69	-9	-43	-52
제1차금속제품	-45	-44	-89	-101	-190
금속제품	-185	201	16	39	55
일반기계	-30	38	8	14	22
전기및전자기기	-95	112	17	63	80
정밀기기	-20	28	8	19	27
수송장비	-209	216	7	8	15
기타제조업제품	-1,809	1,302	-507	46	-461
전력,가스및수도	-15,124	16,332	1,208	-825	383
건설	-348	539	191	54	245
도소매	-877	653	-224	-269	-493
음식점및숙박	-6,753	6,890	137	4	141
운수	-13,437	10,612	-2,825	-55	-2,880
통신및방송	-4,526	43,867	39,341	-12	39,329
금융및보험	-1,519	1,516	-3	74	7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305	3,269	-36	477	441
공공행정및국방	-67,434	7,173	-60,261	-348	-60,609
교육및보건	-26,256	26,748	492	20	512
사회및기타서비스	-9,523	9,681	158	-25	133
기타	0	0	0	0	0
합계	-100,559	99,853	-705	-123	-828

표 5.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별 고용유발효과와 변화

(단위: 명)

산업부문	대경권			타권역	합계
	대구	경북	소계		
농림수산물	-2	2	0	2	2
광산품	0	0	0	-1	-1
음식료품	-191	116	-75	-1	-76
섬유및가죽제품	-105	49	-56	11	-45
목재및종이제품	-5	6	0	0	0
인쇄및복제	-10	2	-8	1	-7
석유및석탄제품	-1	0	-1	0	-1
화학제품	-8	4	-4	2	-2
비금속광물제품	-1	1	-1	-1	-1
제1차금속제품	-1	0	-1	-1	-1
금속제품	-7	4	-3	1	-2
일반기계	-1	1	0	0	0
전기및전자기기	-2	1	-1	1	0
정밀기기	-1	1	-1	0	0
수송장비	-4	4	0	0	0
기타제조업제품	-113	44	-69	2	-68
전력,가스및수도	-254	29	-225	-3	-228
건설	-7	8	0	1	1
도소매	-40	39	0	-11	-11
음식점및숙박	-747	831	84	0	84
운수	-550	234	-315	-2	-317
통신및방송	-56	64	8	0	8
금융및보험	-26	25	-1	1	-1
동산및사업서비스	-52	35	-16	7	-9
공공행정및국방	-114	102	-12	0	-12
교육및보건	-783	749	-34	1	-33
사회및기타서비스	-602	763	161	-1	160
기타	0	0	0	0	0
합계	-3,684	3,113	-571	10	-561

용유발효과와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으로 말미암아 경북은 3,11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대구는 3,68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여 대경권 전체로는 571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청이전은 타 권역에 10명의 고용을 증가시켜 전국적으로는 561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파급효과와 구조분석

도청이전에 따라 지역별로 각종 유발효과와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⁸⁾. 여기서 내부파급효과⁹⁾는 도청이 대구 또는 경북에 입지할 때 대구 또는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하고 지역간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

표 6. 도청입지에 따른 지역간 생산유발효과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대경권			타 권역	합계
	지역내	타 지역	소계		
대구입지	265,923	29,306*	295,229	114,362	409,591
경북입지	280,895	13,044**	293,939	113,182	407,121
차 이	14,972	-16,262	-1,290	-1,179	-2,469

* :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

** : 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다. 지역간 파급효과도 크게 타 지역파급효과와 타 권역파급효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내부파급효과, 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타 지역 파급효과이다. 그리고 대경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타 권역 파급효과이다.

먼저 도청이 대구에 입지하는 경우 대구지역에 미치는 내부 파급효과는 연간 265,923백만원이고 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9,306백만원으로 대경권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295,22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하였을 때 경북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80,895백만원, 대구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3,044백만원으로 대경권 전체에 293,93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대경권 전체로는 1,290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경북도청의 입지가 대경권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타 지역파급효과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경북에 입지하면 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경북의 내부 파급효과가 크에도 불구하고 대경권 전체적

으로는 낮게 된다.

한편 도청입지가 타 권역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있는데 대구입지의 경우 114,362백만원, 경북입지의 경우 113,182백만원으로 도청이 대구에 입지하는 것이 경북에 입지하는 것보다 타 권역에 연간 1,17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입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도 유사한데 대구에 입지하고 있는 경북도청이 대구에 미치는 내부파급효과는 105,907백만원인데 비하여 경북에 입지할 때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10,828백만원으로 경북입지에 따른 내부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0,971백만원인데 비하여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대구에 미치는 효과는 5,348백만원으로 결과적으로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경우 대경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연간 705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청이전 이전이 대경권 이외에 타 권역에는 123백만원의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입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의 경우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내부파급효과는 경북으로 이전할 때보다 대구에 있을 때 637명이 더 많지만, 타 지

표 7. 도청입지에 따른 지역간 부가가치유발효과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대경권			타 권역	합계
	지역내	타 지역	소계		
대구입지	105,907	10,971*	116,878	37,283	154,161
경북입지	110,825	5,348**	116,173	37,160	153,333
차 이	4,918	-5,623	-705	-123	-828

* :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

** : 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표 8. 도청입지에 따른 지역간 고용유발효과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대경권			타 권역	합계
	지역내	타 지역	소계		
대구입지	3,867	117*	3,984	846	4,830
경북입지	3,230	183**	3,413	856	4,269
차 이	-637	66	-571	10	-561

* :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

** : 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에 미치는 효과는 경북으로 이전할 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도청이전은 대경권 전체에 571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생산승수의 구조와 파급효과

도청이전이 대경광역권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앞의 분석결과와 같이 나오는 이유를 보다 심층적

표 9. 대구의 산업별 생산승수

산업부문	계	대구		경북		타권역	
		승 수	영향력 계 수	승 수	영향력 계 수	승 수	영향력 계 수
농림수산물	1.6909	1.2057	0.9597	0.0644	0.4329	0.4209	0.6813
광산품	1.6563	1.2870	1.0245	0.0421	0.2828	0.3272	0.5298
음식료품	2.1158	1.2314	0.9802	0.2691	1.8090	0.6153	0.9961
섬유및가죽제품	2.0661	1.2908	1.0275	0.1805	1.2133	0.5948	0.9629
목재및종이제품	2.0863	1.3175	1.0487	0.0826	0.5550	0.6862	1.1109
인쇄및복제	2.0023	1.2859	1.0236	0.0820	0.5513	0.6344	1.0270
석유및석탄제품	2.7299	1.1512	0.9164	0.0834	0.5604	1.4954	2.4209
화학제품	2.1235	1.1904	0.9476	0.1125	0.7561	0.8206	1.3285
비금속광물제품	2.1320	1.2505	0.9954	0.1806	1.2140	0.7009	1.1347
제1차금속제품	2.4344	1.1640	0.9265	0.6449	4.3348	0.6255	1.0126
금속제품	2.2814	1.2439	0.9902	0.3261	2.1918	0.7114	1.1518
일반기계	2.3571	1.2805	1.0193	0.2287	1.5371	0.8479	1.3727
전기및전자기기	2.0847	1.2315	0.9803	0.1449	0.9738	0.7083	1.1467
정밀기기	2.1308	1.2437	0.9900	0.1542	1.0365	0.7329	1.1866
수송장비	2.5229	1.2626	1.0051	0.2308	1.5511	1.0296	1.6668
기타제조업제품	2.2684	1.2387	0.9861	0.2016	1.3548	0.8281	1.3406
전력,가스및수도	1.7012	1.1512	0.9163	0.1594	1.0715	0.3906	0.6324
건설	2.0261	1.2139	0.9663	0.1724	1.1585	0.6399	1.0359
도소매	1.6268	1.2767	1.0163	0.0365	0.2450	0.3137	0.5078
음식점및숙박	2.0391	1.1898	0.9471	0.1867	1.2551	0.6626	1.0727
운수	1.6917	1.1623	0.9252	0.0304	0.2043	0.4991	0.8079
통신및방송	1.7958	1.3316	1.0600	0.0434	0.2915	0.4208	0.6813
금융및보험	1.6967	1.4244	1.1339	0.0260	0.1749	0.2463	0.398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4418	1.1618	0.9248	0.0346	0.2325	0.2455	0.3974
공공행정및국방	1.5649	1.2534	0.9978	0.0551	0.3701	0.2564	0.4151
교육및보건	1.5648	1.1744	0.9348	0.0358	0.2405	0.3546	0.5741
사회및기타서비스	1.9382	1.3320	1.0603	0.0682	0.4584	0.5380	0.8709
기타	2.8662	1.6284	1.2963	0.2890	1.9429	0.9487	1.5359
합계	56.6361	35.1749		4.1656		17.2956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간 생산승수를 분석하였다. 대구와 경북의 생산승수를 지역별·산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승수는 대구가 56.6361이고 경북이 54.9480으로 경북이 대구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승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승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각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대구 자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35.1749, 경북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4.1656, 그리고 기타 권역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17.29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의 각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경북

자체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37.2518, 대구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1.7768, 그리고 기타 권역에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15.9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권역을 제외하고 대경권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구의 산업별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대경권 전체산업에 야기하는 생산승수는 39.3405, 경북의 산업별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대경권 전체산업 야기하는 승수효과는 39.0286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구에 있어서 각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 변화를 보면 경북의 최종수요 1단위 변화에 비하여 대구자체의 지역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조금 적지만 경

표 10. 경북의 산업별 생산승수

산업부문	계	경북		대구		타권역	
		승수	영향력 계수	승수	영향력 계수	승수	영향력 계수
농림수산물	1.7288	1.2351	0.9283	0.0500	0.7873	0.4437	0.7805
광산품	1.7447	1.2826	0.9640	0.0498	0.7846	0.4124	0.7253
음식료품	2.0801	1.5110	1.1357	0.0418	0.6592	0.5273	0.9275
섬유및가죽제품	2.1380	1.3410	1.0080	0.1476	2.3263	0.6494	1.1422
목재및종이제품	2.1929	1.2879	0.9680	0.1156	1.8210	0.7895	1.3885
인쇄및복제	2.0002	1.2758	0.9589	0.0894	1.4085	0.6350	1.1169
석유및석탄제품	1.3026	1.0861	0.8163	0.0129	0.2025	0.2037	0.3583
화학제품	2.0850	1.2151	0.9133	0.0405	0.6388	0.8293	1.4586
비금속광물제품	1.8421	1.2712	0.9555	0.0427	0.6723	0.5283	0.9292
제1차금속제품	2.3079	1.7317	1.3016	0.0301	0.4742	0.5461	0.9605
금속제품	2.3637	1.5946	1.1985	0.0619	0.9754	0.7072	1.2439
일반기계	2.3659	1.4532	1.0923	0.0927	1.4613	0.8200	1.4423
전기및전자기기	1.8505	1.2449	0.9357	0.0311	0.4902	0.5744	1.0104
정밀기기	2.1175	1.3268	0.9973	0.0516	0.8134	0.7391	1.3000
수송장비	2.5145	1.4401	1.0824	0.0519	0.8184	1.0225	1.7984
기타제조업제품	2.4436	1.3640	1.0252	0.0772	1.2168	1.0024	1.7631
전력,가스및수도	1.6507	1.2047	0.9055	0.0339	0.5350	0.4121	0.7247
건설	2.0318	1.3549	1.0184	0.0469	0.7385	0.6300	1.1081
도소매	1.6473	1.2692	0.9540	0.0561	0.8847	0.3220	0.5663
음식점및숙박	2.0289	1.3229	0.9944	0.0553	0.8709	0.6507	1.1444
운수	1.6629	1.1429	0.8590	0.0306	0.4818	0.4895	0.8610
통신및방송	1.8259	1.3155	0.9888	0.0792	1.2486	0.4312	0.7584
금융및보험	1.7123	1.3108	0.9853	0.1606	2.5305	0.2409	0.423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4685	1.1782	0.8856	0.0340	0.5360	0.2562	0.4507
공공행정및국방	1.4843	1.2172	0.9149	0.0350	0.5523	0.2321	0.4081
교육및보건	1.5467	1.1746	0.8828	0.0338	0.5322	0.3384	0.5951
사회및기타서비스	1.9490	1.3467	1.0123	0.0603	0.9504	0.5419	0.9532
기타	2.8618	1.7534	1.3179	0.1643	2.5891	0.9441	1.6606
합계	54.9480	37.2518		1.7768		15.9194	

북산업과 타 권역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북보다 생산승수가 더 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분석결과는 전체산업의 생산승수를 살펴본 것인데 사실 생산승수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의 효과는 도청에 의하여 유발되는 최종수요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다.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음식료품 등 12개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음식료품, 전력·가스및수도, 음식점및숙박, 운수,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기타 등 7개 산업의 생산승수는 대구가 경북보다 클 뿐만 아니라 지역간 생산승수 즉 대구가 경북에 미치는 승수효과도 크다. 반면 섬유및가죽제품, 기타제조업, 건설, 통신및방송, 사회및기타서비스업 등 나머지 5개 산업의 생산승수는 경북이 더 클 뿐 아니라 대구에 미치는 생산승수도 대체로 더 크다. 이 가운데 도청은 앞의 7개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이 대경권 전체의 생산유발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도청이 나머지 5개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도청이전은 대경권 전체의 생산유발효과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생산승수 분석은 대체로 앞의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6. 결론

본 논문은 지역간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토대로 경북도청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와 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도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도청 신도시로 이주한다고 가정할 때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

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도청이전이 대경권에 미치는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가 적기는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대구지역경제는 생산유발효과를 비롯한 각종의 유발효과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청 및 관련기능을 대신하여 대구의 중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구의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경북에 있어서 최종수요의 변화가 대구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간 연계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경권이라는 광역경제권을 단순히 대구와 경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도청이 경상북도 가운데서도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대경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면 지역간 산업연관분석모형은 공공기관 입지의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수단으로 더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

- 1)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도와 광역시의 행정적 통합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 2) 본 연구는 최종수요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받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청신도시 건설의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이전되는 수요가 아니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지역간 생산승수의 도출에 관해서는 Miller & Blair (2009), 지혜명(2011) 참조
- 4) 경상북도(2010),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본 보고서, pp.137-143.
- 5) 가족(2,56인/가구)이 모두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추계한 소비지출액
- 6) 지출계정의 지방정부소소비지출은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에 의해 대분류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항목은 산업연관분석의 28개 항목과 일대일 매치가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7) 생산세 제외
- 8) 산업연관분석모형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모형자체가 가지는 한계, 엄격한 가정,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의 구축 문제, 자료수집의 문제, 실증적 검증 문제 등이 제기되는 한계로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도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준근(2006), Miller & Blair(2009) 참조.

- 9) 내부효과도 순내부효과와 환류효과로 구분된다. 각 효과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Miller & Blair(2009), 김홍배(2009) 등 참조

문헌

- 경상북도, 2010,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본보고서.
- 경상북도, 2010,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방안 보고서.
- 권경득, 2000, 충청남도 도청이전의 절차, 쟁점 및 과제; 국내외 자치단체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4(1), 107-152.
- 권태현, 2004, SAS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도서출판 청람, 서울.
- 김명수·윤영선, 2000, 세 지역 MRIO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연관 분석, 경제학연구, 48(2), 175-207.
- 김상호·김재철·임형섭, 2001, 전남도청 이전이 광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1), 97-113.
- 김용웅·차미숙, 2001,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 연구. 국토연구원.
- 김중구, 2009, 지방정부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적용, 한국지방재정논집, 14(1), 1-25.
- 김태환·이동우, 2005,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효과. 도시연구, 282, 3-15.
- 김홍배, 2009, 도시 및 지역경제분석론, 기문당, 서울.
- 박상우·이종열·변세일, 2003,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III), 국토연구원.
- 윤갑식, 2006, MRIO를 이용한 충청권 지역간 산업연관구조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 이데 마사히로, 2010, Excel을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입문, 제주대학교출판부, 제주.
- 이성근·이준근, 1995. 신도청의 건설투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1), 73-87.
- 이준근, 2006, 지역산업연관분석론. 학문사, 서울.
- 이준근, 2008,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효과 분석, 응용경제, 10(2), 231-248.
- 임재영, 2006, 충남도청 이전의 효과, 열린충남, 34, 42-61.
- 임형빈, 2009, 충청권 경제모형 구축연구 II; 충청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 전라남도, 2002, 남악신도시 사업추진전략.
- 정준화, 2010,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에 따른 광역경제성장 효과분석: 1983년 경남도청 이전 사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61-182.
- 정 현, 2001, 도청입지 기준의 설정 및 파급효과 분석:경상북도 도청을 중심으로, 경주연구, 10, 93-124.
- 지해명, 2011, 지역간 생산승수와 생산연계구조-지역경제성장의 제약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9(1), 131-161.
- 한국은행, 2009,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 Hewings, Geoffrey J. D., Michael Sonis, Moss Madden, and Yosho Kimura(eds.), 1999.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Economic Structure*, Berlin: Springer.
- Miller, Ronald E. & Blair, Peter D, 2009,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 Richardson, H. W, 1972, *Input-Output and Regional Economics*, John Wiley & Sons, New York.
- **교신**: 전경구,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산15,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지역계획학과, 이메일: kkchun@ac.kr, 전화:053-850-6345, 팩스:053-850-6198.
- Correspondence : Kyung Ku Chun, Dept. of Urban Planning, Daegu University, 15 Jillyangeup, Gyeongsan City, Korea, E-mail: kkchun@daegu.ac.kr, Telephone: +82-53-850-6345, Fax:+82-53-850-6199.

(접수: 2013.02.18, 수정: 2013.04.12, 채택: 2013.04.30)